

소외계층에 나눔 꾸러미... '순천형 권분운동' 눈길

〈權分〉

조선시대 극빈자 구제 재물나누기
허석 순천시장이 제안
쌀 등 1주일 분량 생필품 꾸러미
무료급식 끊긴 1000명에 전달

'순천형 권분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권분(勸分)은 조선시대 고을 수령이 극빈자 구제를 위해 부자들에게 재물 나누기를 권했던 '미풍양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달 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각계에 '순천형 권분운동'을 제안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수의 의미로 1000만 원을 순천형 권분운동에 기부했다.

지난 22일 오전 8시 순천시 팔마체육관. 순천시 지역 봉사단체 '라일락' 회원과 시민 80여명이 나눔 꾸러미를 만드느라 분주했다. 꾸러미에는 쌀과 김치, 라면, 김, 과일, 계란, 마스크 등이 담겨졌다. 꾸러미 1개에는 1가구가 1주일간 먹을 식량이 담겼다.

앞서 지난 16일 순천농산물도매시장 내 팔영청과 송광현(58)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10년간 모은 적금 등을 보낸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씨앗이었다.

이들은 3시간 동안 꼼꼼하게 생필품을 담은 꾸러미 1000개를 만들었다.

송 대표의 기부는 순천형 권분운동의 첫 실천인 권분꾸러미 1000개 만들기로 결심을 맺었다. 송 대표는 30여 년 동안 과일을 팔아온 상인이다. 젊었을 때 10년 동안 고흥에서 과일을 구입한 뒤 트럭에 싣고 다니며 팔았다. 2001년부터 순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과일 도소매를 했다.

이 꾸러미는 다음날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 끼니 걱정을 해야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시민도 많다"며 "이번 권분꾸러미 나누기가 기폭제가 돼 지역 기관·기업·단체 등이 동참, '순천형 권분운동'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꾸러미를 건네받은 한 이웃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료급식이 중단돼 난감했는데 먹을거리를 받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 봉사단체인 라일락 회원과 시민 등 80여 명이 지난 22일 팔마체육관에서 소외계층 1000가구에 전달할 권분 꾸러미 1000개를 만들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조성 재추진에 시의회 반발

시 "인근상인 협조"...사업비 편성
의회 "진정성 있는 사업 고민해야"

업비 19억원을 편성, 시의회 제출했다. 순천시는 '체육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순천국가정원 인근 동천저류지 1만1000㎡ 부지에 푸드트럭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순천시가 지난해 예산 전액이 삭감된 '순천만 야시장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자, 순천시의회가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푸드트럭 50대를 동천 저류지에 마련하고 데크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야시장을 만든다며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 용역 결과 100만명 이상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5일 순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야시장 조성 사업에 대해 인근 상인들을 설득,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야시장 조성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하다. 김미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연례 예산과 별도로 재년·경기 침체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추경예산에 야시장 조성 예산 19억원을 편성할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순천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업을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26일 예결위원회를 열어 50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야시장 조성 사업에 대해 인근 상인들을 설득,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야시장 조성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야시장 조성 사업에 대해 인근 상인들을 설득,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야시장 조성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

기존 중위소득 50%→80%로 확대

순천시는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진행 중인 '순천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순천형 긴급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영업 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5일부터 추진 중이다.

순천시는 지원 사업비로 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50%(4인 가구 237만4587원)에서 80%(4인 가구 379만9339원)로, 재산은 1억18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금융·현금은 1000만원에서 1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하고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한다. 이번 기준은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 적용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2회 이내로 나눠 지원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신청사 건립 탄력...7월부터 토지 보상

행안부 타당성 조사 통과
1800억 들여 2025년 준공

기간은 2025년까지가 적정하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 1월4일 건립 위치 확정 이후 시민참여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타당성 조사 기간 동안에는 청사 신축의 필요성과 각 요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행안부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노력했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신청사 신축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행안부는 타당성 조사에서 현 청사의 노후도, 부족한 사무공간, 분산된 청사의 현황에 따라 신청사 신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총사업비 1800억원, 총연면적 4만7000㎡, 지하주차장 512면, 사업

이런 행안부의 적정성 통보는 기존 시민참여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로 확정됐다. 새 청사는 현 청사 일원에 건립되며, 분청 1만



순천시 신청사 예정 부지.

6881㎡, 의회 3199㎡, 법적 의무시설 3191㎡, 사업소 2571㎡, 지하주차장 1만8432㎡, 주민편의시설 2171㎡ 등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타당성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된 청사를 모아 시민들에게 통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사무공간과 편의시설을 담은 실용적이고 생태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은 올해 6월까지 전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 신청사 건립 사업을 착공해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